

학습리더 양성 · 면학분위기 조성

호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Learning Helper 발대식 가져

호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가 '2018학년도 Learning Helper'를 임명해 발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임명된 Learning Helper는 재학생들의 학습리더로서 학습특강, 상담과 동아리 활동 등 호원대학교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눈높이 학습지원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2018학년도 Learning Helper는 교내 신입생 프로그램인 2018 희망 디딤돌 프로그램에 각 학과의 특강 자로서 학과 소개 및 학습법을 안내하는 "스타트업 특강"을 하게 된다.

특강자들은 지난 해 12월 20일에는 특강 교육을 받았으며, 3월 2일에는 발대식과 사전교육을 거쳐 신입생들에게 맞춤형 학습법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Learning Helper는 학부(과)별 재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과특성에 따른 학습법을 소개하여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에게 요긴한 학습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발된 20명의 Learning Helper들은 성적이 우수하고 학과에서 모범이 되는 재학생들로 간호학과 전윤희, 오윤태, 공연미디어학부 정주연, 한진규, 김찬욱, 국방과학기술학부 한기범, 강민권, 물리치료학과 한수진, 박다솜, 비즈니스학부 한예슬, 사이버수사경찰학부 명노훈, 사회복지학과 이재인, 소방



호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가 '2018학년도 Learning Helper'를 임명해 발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안전관리학과 이경민, 스포츠 경호학부 김미리, 시각디자인학과 권예람, 실용음악학부 하준혁, 언어치료학과 이주란, 유아교육과 조성은, 응급구조학과 장운서, 자동차기계공학과 김병정, 작업치료학과 최가람, 치위생학과 조은서, 패션디자인학과 손동민, 항공서비스학과 임다은 총 26명이다.

김은정 호원대 교수학습개발센터장(유아교육과 교수)은 "Learning Helper를 통한 스타트업 특강과 학습코치 프로그램이 재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에 호원대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특장인 맞춤형·협력형의 체계를 보강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동산동 정월 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성료

2018년 한해 동산동 주민의 안녕과 화합을 위한 정월 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가 지난 2일 동산동 쪽구름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제전위원회 주관으로 동산동 대송아파트 인근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동산동 주민을 비롯한 전주시민 2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달집태우기는 음력 정월 대보름날 달집을 태워서 이것이 고루 잘 타오르면 그 해는 풍년, 불이 도중에 꺼지면 흉년, 달집이 타면서 넘어지는 쪽의 마을이 풍년, 이웃마을과 경쟁해 잘 타면 풍년이 들 것으로 짐치는 우리 고유의 세시풍속이다. 행사에서는 달집태우기를 비롯해 투호놀이, 쥐불놀이, 지역주민 부럼나누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도 즐겼다.

정읍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기총회 가져

정읍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진태)에서는 최근 부안 K컨벤션 웨딩홀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양동훈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과 김진태 이사장을 비롯하여 각 지자체 기관장과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로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2017년도 사업보고와 수지결산 승인, 2018년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승인, 임원 선임과 공지사항 안내가 이어졌다.

이어 2부는 우수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회원들의 화합 한마당인 어울 한마당 잔치로 진행됐다.

우수 유공자에는 이영운(고창군청)씨, 송창환(부안군청)씨, 김병기(부안지회)씨가 선정돼 지청장 표창을 받았다. 또 우수 회원 유공자인 정읍지회 김남희 씨 등 모두 6명이 이사장 표창과 공로패 수상의 영예를 받았다.

이날 김 이사장은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실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나 지원은 국가의 책무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따라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일에 관계 기관을 비롯한 우리 센터 회원들의 노력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읍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기총회 모습

알림

▲전주상공회의소 신청사 준공식 및 제22대 의회 출범 = 일시: 5(월) 오전 10시 50분, 장소: 전주상공회의소 1층, 7층



바르게살기운동 진안군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사)바르게살기운동 진안군협의회(협의회장 최경호) 정기총회가 지난 2일 오전 11시 11개 읍면 위원장을 비롯해 고문,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농협 2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질서·화합의 이념으로서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국민정신운동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 21세기를 선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의식 개혁운동 앞장 등의 행동 강령을 낭독했다.

낭독을 마치고 2017년 주요사업 실적에서 기초질서 실천 전변화(안전문화 바른 실천 다짐대회 개최, 기초질서 및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영농폐기물 수거사업(관내 11개 읍면에서 8690kg 수거), 국민화합 전진대회(경북 경산 실내 체육관 회원 45명 참석) 등을 보고했다.

최경호 협의회장은 "바르게살기운동 강령을 준수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선망의 선도단체가 되자"며 오는 10월 19일 진안군 홍삼축제와 함께 개최되는 영·호남 국민화합 전진대회에 열정적인 참여로 좋은 결실을 맺자"고 당부했다.

최영규 도의원, 민주당 중앙당 디지털소통위 부위원장 임명

전북도의회 최영규(익산4) 의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디지털소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최영규 의원실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장을 받았다.

최 의원은 "제7회 지방동시선거에서 디지털소통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최근 사회적 문제인 가짜뉴스와 댓글조작을 근절해 나가면서, 문재인 정부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규 의원의 디지털소통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장 수여 모습

전주우체국-효자시니어클럽, 어르신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전주우체국(국장 박찬례)은 전주효자시니어클럽(관장 최재훈)과 2일 전주우체국 회의실에서 우편서비스 증진과 지역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날로 증가하는 우체국택배 물량 중 아파트 배송을 지역 어르신들에게 위탁하게 됨에 따라 지역 어르신들은 무리하지 않으면서 소득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며, 우체국은 집배원의 업무 경감을 통한 한 차원 높은 우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고 자원의 지역 환원을 통한 지역과 함께하는 우체국의 이미지를 다질 수 있게 됐다.



전주우체국-효자시니어클럽 업무협약 체결 모습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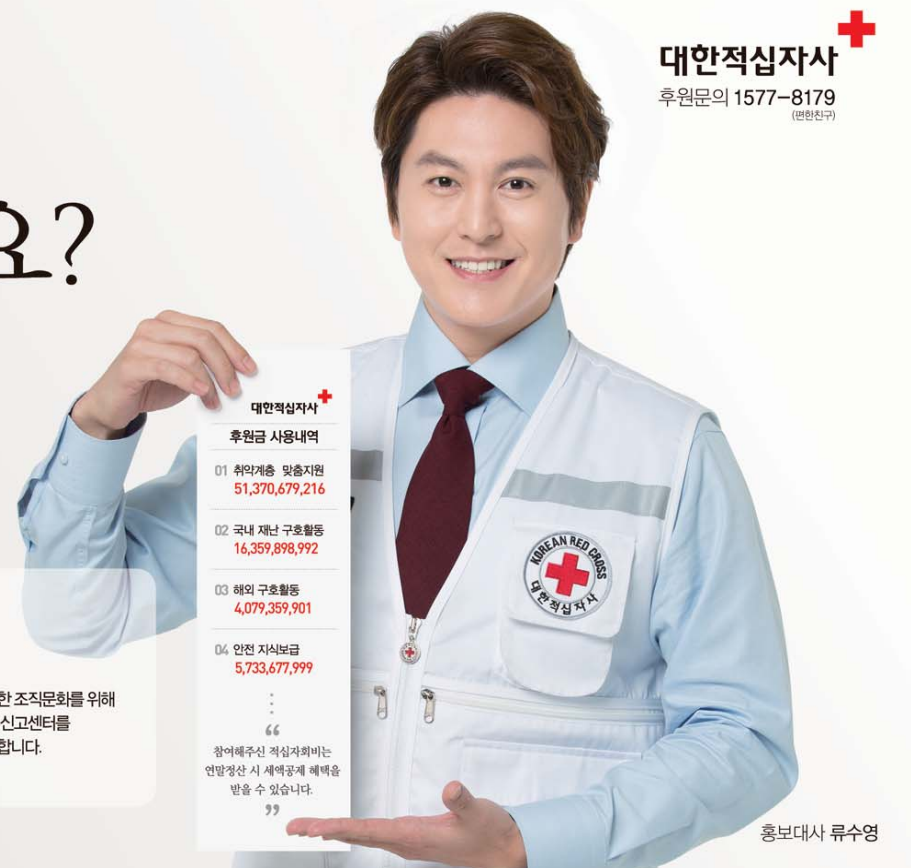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청렴한 조직문화와 윤리 경영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민간전화)

- 대한적십자사 후원금 사용내역
- 0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1,370,679,216
-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 04 안전 지원금 5,733,677,999
- ...
- 66
- 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9

홍보대사 류수영